

ECHO^{#05}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Soyez fier de vous :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라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vol.5

총괄 편집장 김성해 Kim seong hae

Design

이승민 Lee seung min

손현아 Sohn hyun a

Editor

나중일 Na jung il

윤유미 Yunyu mi

조은진 Jo eun jin

김나영 Kim na young

나예진 Na ye jin

공유나 Kongyu na

우혜정 Woo hye jung

VOL5 CONTENTS :

E

05 다양한 색들로 가득 찼던 캄보디아

동남아여행 이야기를 담은 천효진 학우

09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장애학생 도우미 공유나 학우

C

12 고양이는 항상 집사들을 예의주시 한다

반려동물 이야기를 담은 우혜정 학우

H

17 돌아온 봄 돌아오신 류성진 교수님

류성진 교수님과의 인터뷰

21 봄이면 생각나는 선배 ①

서다혜 졸업생의 인터뷰

23 봄이면 생각나는 선배 ②

우아란 졸업생의 인터뷰

25 자취일기 ①

26 자취일기 ②

27 자취일기 ③

O

29 청춘 봄을 말하다

봄이면 생각나는 영화 추천

31 봄의 순간

봄의 이야기





Engaging

“

다양한 색들로 가득 찼던 캄보디아

지난해 여름, 나는 홍콩인턴십을 끝내고 36박 37일 동안 동남아 일주를 하고 왔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다양한 색깔을 가진 나라들이 엄청난 추억거리를 만들어줬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은 나라인 캄보디아 여행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1일차

방콕에서 9시간 버스를 타고 달려온 씨엠립. 저녁 6시 무렵 답답했던 버스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숙소로 향했다. 배고팠던 우리는 후다닥 가방을 벗어 던지고 한식당으로 갔다. 홍콩에서도 비싸서 잘 못 먹었던 한식을 여기서 먹을 수 있을 줄이야. 캄보디아 물가로 치면 좀 비쌌지만, 한식이 그리웠던 우리에게겐 5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밥과 고기가 무한리필이라 배불리 먹고 나온 우리는 나이트마켓을 구경하러 갔다. 씨엠립 나이트마켓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다른 나라의 나이트마켓보다 훨씬 감각적이고 예쁜 물건들이 많았다. 배낭객만 아니었으면 다 사는 건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씨엠립 나이트마켓.

2일차

원래 앙코르와트에 가려고 했던 우리는 방콕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 다이치가 내일 캄보디아에 도착한다며 톤레삽 호수를 같이 보러 가자길래 급하게 일정을 바꿔 톤레삽 호수 보드투어를 예약했다. 톤레삽 호수는 경상북도 면적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호수로 메콩 강으로 흘러간다. 톤레삽 호수까지 약 한 시간 정도 달렸는데, 방콕에 있다 와서 그런지 순수한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예뻐다.

수상가옥 마을을 구경하러 갔는데 8월 건기 시즌이라 물이 없었다. 수상가옥 마을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전쟁을 피해 캄보디아로 넘어온 사람들로 이뤄져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자국에서는 전쟁 때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받아주지 않았고, 캄보디아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정착할 곳이 없어 톤레삽 호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구걸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고, 실제로 캄보디아 내에도 톤레삽호수 쪽에 산다고 하면 놀림거리가 된다고 한다. 마을을 구경하고 선셋을 보러 강 한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심하게 요동쳐 배가 뒤집어질 뻔했다. 다행히 우린 빠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고, 언니와 나는 전날 잠깐 들린 펍스트리트로 가서 파스타와 샌드위치를 시켜먹었다. 맥주도 0.5달러밖에 하지 않아 죽어라 마시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다.

3일차

오늘은 드디어 기대했던 앙코르와트 가는 날! 선라이즈투어를 신청한 우리는 새벽 4시 30분에 툽툽을 타고 앙코르와트로 향했다. 가는 길에 다이치 픽업. 아침에 표를 만들 때 사진을 찍는데 새벽이라 퉁퉁 부은 상태로 급작스럽게 찍어 엄청 못 생기게 나왔다. 서로의 사진을 보며 얼마나 웃었던지. 서둘러 간 앙코르와트에서는 조금씩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눈으로 담고 있어도 또 담고 싶은 광경이었다.

선라이즈도 선라이즈였지만 앙코르와트에 들어간 순간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12세기에 지어졌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규모가 엄청났다. 그 와중에 보이는 낙서들은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우린 앙코르와트를 나와 앙코르톰으로 향했다. 앙코르톰에서 가장 큰 사원인 바이온 내에는 다양한 표정들로 이루어진 '앙코르의 미소' 또는 '크메르의 미소'라 불리는 얼굴들이 조각되어 있었다.

바이온사원에서 바푸온사원으로 가는 길에 한국인 여학생을 만났다. 나와 동갑인 여학생이었는데, 혼자서 동남아 일주를 한다고 했다. 앙코르와트를 3일째 방문하고 있으며, 대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왔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유적지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부를 안 하고 온 나는 친구의 설명이 한 줄기의 빛과 같았고 흥미롭게 들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더 멋있게 보였던 유적지였다.

바푸온을 내려와 안젤리나졸리 주연의 영화 <툼 레이다>의 촬영지로 유명한 '타 프롬'으로 향했다. 이곳은 거대나무들에 의해 무너졌는데 그 파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 복원은 거의 힘들다고 했다. 실제로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서 성장억제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앙코르 왕의 목욕탕까지 본 우리는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치켜 더는 못 보겠다며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갔다.

새벽부터 움직였던 우리는 낮잠을 한숨 자고 저녁쯤 돼서야 밖으로 나왔다. 원래는 프놈바켕에 가서 일몰을 볼 계획이었는데, 앙코르와트에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써 프놈바켕은 포기했다. 7시쯤 펍스트리트로 간 우리는 일본인 친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친구들이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다음엔 꼭 미국으로 여행가겠다고 약속했다.

4일차

오늘 밤 시아누크빌로 가는 나이트 버스를 예약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씨엠립을 한 바퀴 돌았다.

첫 번째로 와트마이 사원을 들렀다. 와트마이 사원은 킬링필드로 희생된 이들의 위령탑과 시신의 뼈를 안치해둔 사원이다. 킬링필드는 프랑스 공산주의에 심취한 캄보디아인이 40년 전 정권을 장악하면서 도시인들을 농촌에 강제로 이주시키고,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시킨 끔찍한 역사다. 실제로 가면 관광객들 모두 엄숙한 태도로 관람하고 나온다.

올드마켓을 잠깐 둘러 구경을 하고 일본인 친구와 마지막 작별인사 후 우린 시아누크빌로 갈 채비를 했다. 시아누크빌로 향하는 나이트 버스는 완전 침대형식으로 되어 있어 편하게 자면서 갈 수 있었다.

5일차

슬리핑 버스에서 꿀잠을 자고 도착한 우리는 빅토리비치 주변으로 잡은 숙소로 향했다. 시아누크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 빅토리비치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한 나와 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레스 비치로 향했다. 오토레스 비치로 가는 길에 세렌디피티 비치를 봤는데 사람도 많고 정말 예뻐다. 시아누크빌에서 본 바다는 바닷가에서 태어난 내가 봐도 너무나도 맑고 예뻐다.

오토레스 비치에 도착해 시아가 트인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피자를 먹는데 마치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과 더불어 꿈인가 싶었다. 그 정도로 너무 예쁘고 평화로웠기에. 수영을 하고 선베드에 누워 사람들을 구경하고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알차게 오전을 마무리했다.

우린 숙소로 돌아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 너무나도 좋은 레스토랑에서 멋진 노을을 보며 저녁을 먹는데 그냥 시아누크빌에 있는 하루 내내 꿈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예쁜 줄 모르고 일정을 하루만 잡았던 우리는 엄청난 후회를 했다. 동남아 일주 중 가장 좋았던 곳이 캄보디아인 이유엔 물론 앙코르와트도 있지만, 시아누크빌의 영향도 엄청 크다. 다시 꼭 와보고 싶은 도시였다!

일본인 친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친구들이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서 다음엔 꼭 미국으로 여행가겠다고 약속했다.

6일차

사람이 없어 여유로웠던 시아누크빌과 반대로 프놈펜에 도착하자마자 차가 엄청 막혔다. 알고 보니 캄보디아 정치 반정부 평론가가 편의점에서 피살되어 캄보디아 국민들이 흰옷을 입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시위하고 있었다.

프놈펜에선 딱히 할 게 없어 프놈펜 최대 마트인 이온몰에 갔다. 프놈펜이 캄보디아의 도시라 그런지 확실히 씨엠립이나 시아누크빌 사람들과 느낌이 달랐다.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게 느껴졌다. 이온몰에서 마트구경을 하고 우린 캄보디아 전통음식을 먹었다. 베트남 음식이랑 느낌이 비슷해 별 거리낌 없이 먹었던 캄보디아 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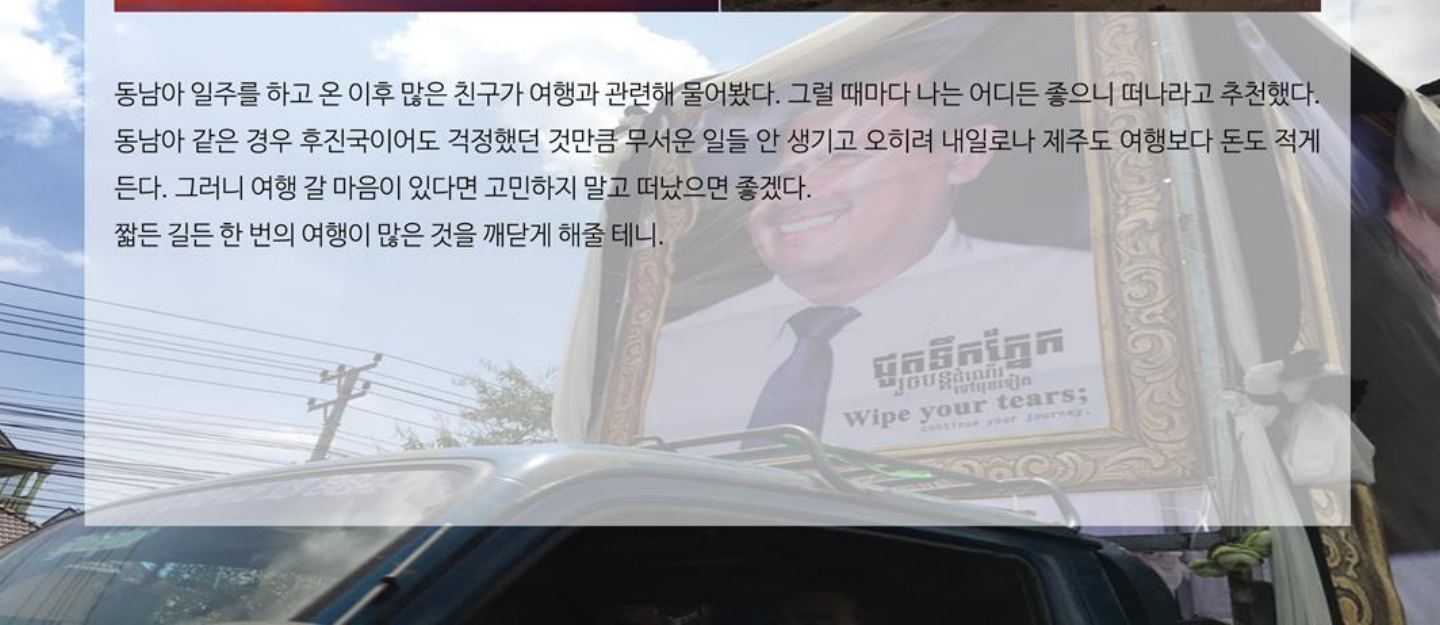
7일차

이렇게 약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에 머물렀던 우리는 다음 나라인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는 표를 숙소에서 구매했다. 이전에 베트남에 들렀던 우리는 인터넷에서 도착 비자만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버스를 탔는데 직원이 비자가 없으니 내리라고 했다. 그들은 자기들한테서 익스프레스 비자를 받으라며 70달러를 요구했다. 너무 얼토당토않은 가격에 우린 거절하고 숙소로 돌아가 호치민과 무이네를 포기하고 말레이시아로 바로 갈까 고민했다. 엄청난 고민 끝에 비자 만들고 버스 타는 게 제일 돈을 안 날리는 것이라 생각해 버스회사에 비자를 맡겼다. 비싼 돈 내고 비자를 만들어 버스를 탔는데 에어컨이 고장 났다며 내리란다.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1시간 30분 동안 기다려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어렵게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다. 12세기에 만들어진 앙코르와트, 예쁜 관광지로 꾸며진 시아누크빌, 부정부패가 심한 프놈펜까지 다양한 도시들을 보고 느꼈기에 캄보디아가 내가 갔던 동남아 나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뭐든 자신이 느끼기 전까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라고 생각한다. 어디든 떠나보고 겪어보고 생활해 보는 게 자신의 견문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동남아 일주를 하고 온 이후 많은 친구가 여행과 관련해 물어봤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디든 좋으니 떠나라고 추천했다. 동남아 같은 경우 후진국이어도 걱정했던 것만큼 무서운 일들 안 생기고 오히려 내일로나 제주도 여행보다 돈도 적게 든다. 그러니 여행 갈 마음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떠났으면 좋겠다. 짧은 길든 한 번의 여행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줄 테니.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입학 전 2월, 나는 한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다. 그 채팅방에서 학회장 선배가 “학과에 처음으로 지체 장애 학생 친구가 입학했는데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많이 부족한 내가 이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선배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고민했다. 하지만 그 망설임도 잠시,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번득 들었고, 나는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제가 혜은이 도와주세요.” 라고.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걱정보단 기분 좋은 설렘이 먼저였고, 개강이 기다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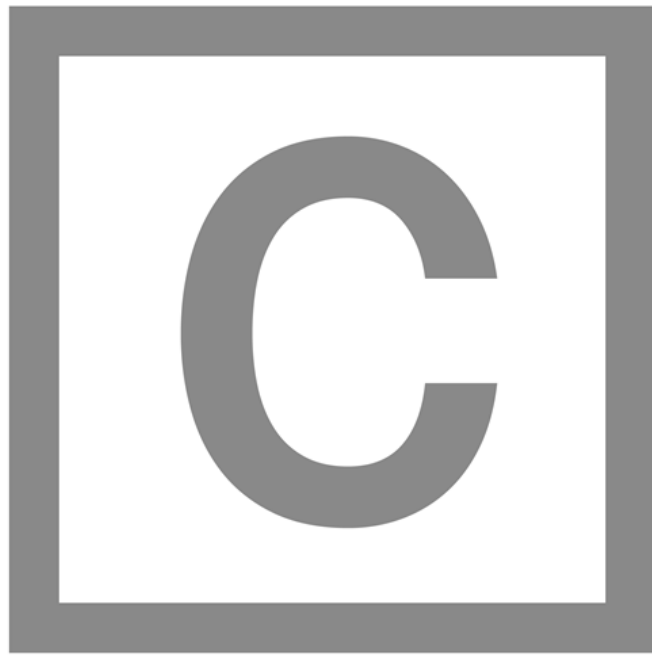
개강 날엔 많이 힘들었다. 처음 오는 학교, 처음 보는 풍경, 처음 보는 강의실, 처음 해 보는 전자출결. 모든 게 낯설었던 나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더없이 힘들었다. 그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쓰러져 바로 잠이 들었다. 그렇게 며칠간은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도 몰랐고, 한없이 어려워 집에서 많이 걱정도 했다. 도와주는 입장으로써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이 벅박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와중에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 장애 학생 도우미 안전교육을 듣게 되었다.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장애 학생들도 있었고 그 장애 학생을 돕는 도우미 분도 많이 계셨다. 그냥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조교님이 “장애 학생들은 여러분들이랑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단지 몸이 불편한 것뿐이지, 다 같은 여러분들의 친구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멍해졌고 나는 ‘그래 내가 혜은이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혜은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혜은이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모든 걸 돕기보다는 같이 하나하나씩 서로 도우며 지냈다. 혜은이 또한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나 과제, 가상강좌 등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나에게 ‘유나야’라고 연락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었다. 가끔은 지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웃긴 이야기도 하고 학교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한 번 크게 웃으면 그런 힘든 것이 조금 나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그리고 혜은이도 나에게 무조건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내려는 모습과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혜은이라는 친구를 통해 참 배울 점이 많다. 금방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 항상 밝고 웃음이 많은 것, 과제를 항상 착실하게 잘하는 것 등 같이 다니면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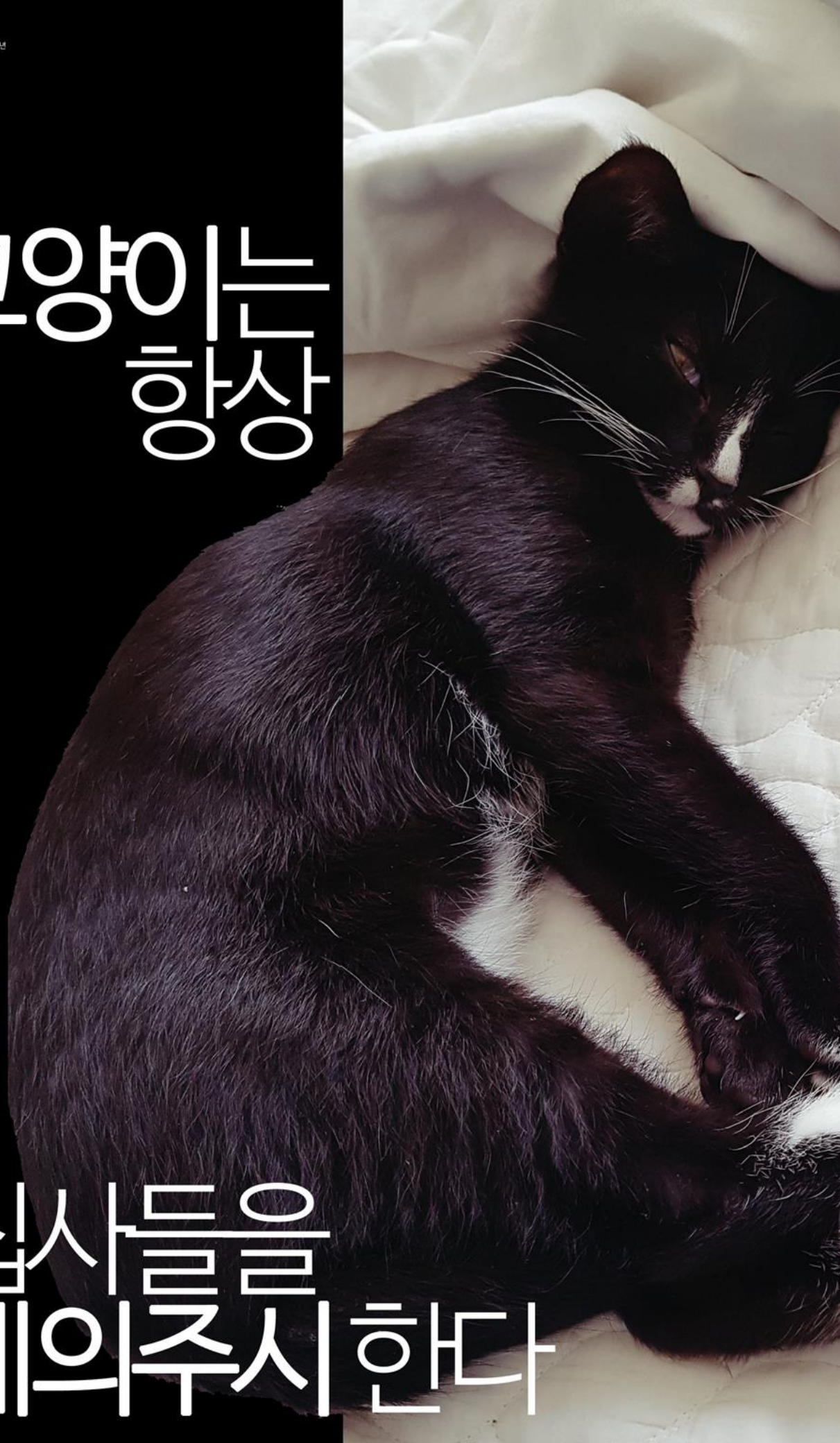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우리 학교에는 2백 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흔히 장애 학생이라고 하면 몸이 불편한 학생이라고 많이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농담도 하고 옆에 와서 장난도 같이 치며 이야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mmunicating

고양이는
항상

집사들을
예의주시한다



최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나 역시 그렇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당신의 반려동물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보살피고 주고 있는가?
나 역시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의 집사 관찰기를 써 보려 한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반려동물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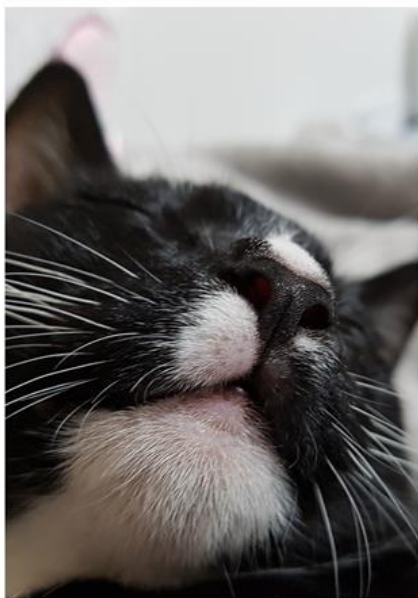
집사는 어젯밤에 늦게 잠들어서 시끄러운 알람이 몇 번이 울려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단잠을 깨우는 건 덤이다. 눈이 떠져서인지 배가 매우 고프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자 집사가 옷장을 뒤적거렸다. 또 시작이다. 어딜 가는지 매일 혼자 패션쇼를 한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내 밥도 주고 화장실도 치우고 나를 즐겁게 해준 후 준비하고 여유롭게 나가면 되는데. 내 집사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다.

화요일

침대에서 책을 읽는답시고 책을 펼치더니 그대로 잠이 든 한심한 집사다. 이른 시간에 잤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집사다. 나의 냥냥 펀치에도 안 일어나고, 멋지고 우렁찬 목소리를 들려줘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배가 고파서 힘도 없고 나른해서 다시 누웠다. 눈을 뜨자 집사가 방에서 사라졌다. 나에게 인사도 없이 가다니, 괴씸하다. 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기를 몇 분이 지나자 머리에서 물이 똑똑 흐르는 집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배려 없는 집사는 내가 물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물을 닦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게 말이 되는가. 집사를 혼내기 위해 발을 향해 점프했지만, 관심조차 주지 않고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기계를 꺼내 들어 머리를 말렸다. 그리고는 방을 나섰다.

수요일

오늘 집사가 일어나 화장실을 치우고 밥도 많이 줬다. 오늘따라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다. 나도 기분이 좋아서 복도부터 방까지 달려가기를 몇 번 카펫에 누워서 오랜만에 애교도 부려주니 집사가 좋아 죽는다. 내가 귀엽기는 하지. 나의 귀여움을 어필하던 도중 집사가 내 뺨살을 만졌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다니.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집사한테 공격을 가했다. 집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방 표정을 푼다. 집사와 주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는 선을 지킬 줄 모르는 것 같다. 배려가 없다. 앞으로 열심히 교육해야겠다. 다른 고양이들에게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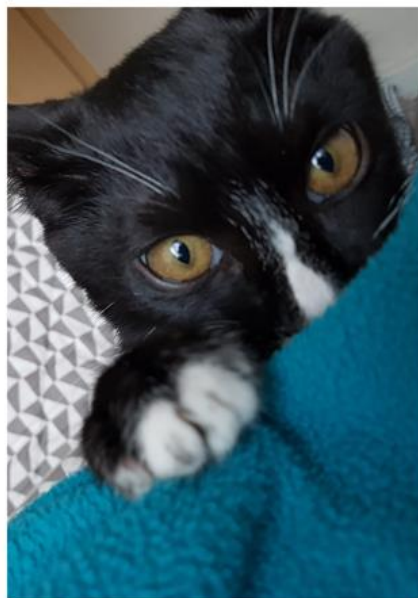
목요일

학교에 갔다가 온 집사는 제일 먼저 문을 열어 내 이름을 부른다. 아주 교육이 잘 된 집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꾸 화장실로 들어가 손에 물을 묻히고 나온다. 온종일 보다가 못 본 집사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손에 물을 묻히고 온 후 나를 좀 쓰다듬더니 네모난 것을 자꾸 만지작거린다. 나를 두고 자꾸 한눈을 팔다니 서운한 마음에 집사를 물었다. 그제야 나의 전용 장난감을 들고 와 나의 심심함을 해소 시켜줬다. 집사라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아야 할 텐데 일일이 내가 알려줘야 한다니. 그래도 잘 놀아주니까 한 번만 봐주는 거로 해야겠다.



금요일

집사가 왜인지 알람도 켜지 않은 채 잠을 잔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나도 다시 누워서 집사와 같이 잠을 청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다가 네모난 것의 진동 때문에 집사가 눈을 떴다. 네모난 것을 보더니 갑자기 또 다른 큰 상자를 눌렀다. 그러더니 얇은 네모난 상자에서 빛이 나왔고, 이상한 점들과 그림들이 움직이는 신비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네모난 상자에서 불빛이 나오고 점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서 냅을 놓고 보았다. 자꾸 집사가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의 위치를 슬쩍 옮기려고 했다. 난 다시 올라가서 신기한 광경을 시청했다.



변의 집사 없는 시간 알차게 보내기

집사가 집을 떠나는 사이 나의 파티가 시작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티슈의 휴지를 뽑아서 뜯기다. 흰색의 티슈 조각이 바닥에 흩날리는 게 참 아름답다. 하지만 집사는 나의 즐거움을 뺏으려고 하는지 티슈를 다 얹어 놓는다. 그래서 집사가 없는 시간에 가끔 일탈처럼 티슈 뜯기를 즐기는 중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식물들과의 교감이다. 흙에 올라가 식물들과 얘기를 하는 것이 내 낙이다. 하지만 그 역시 내가 식물 근처에만 나를 식물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집사를 볼 수 있다. 가끔 맛이 궁금해서 훑아본다거나 뜯지만, 식물들도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싶을 것이다. 세 번째는 비밀로 가득 찬 쓰레기통 탐험하기인데 가장 즐거운 쓰레기통은 집사 방의 것이다. 쓰레기통을 탐험하면 구하기 힘든 티슈와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것들이 모여있다. 쓰레기통 하나만 있으면 1시간 정도는 놀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외에도 높은 곳 올라가기, 바깥 구경하기 등등이 더 있다.

보리의 관찰기를 통해 당신들의 반려동물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소홀했던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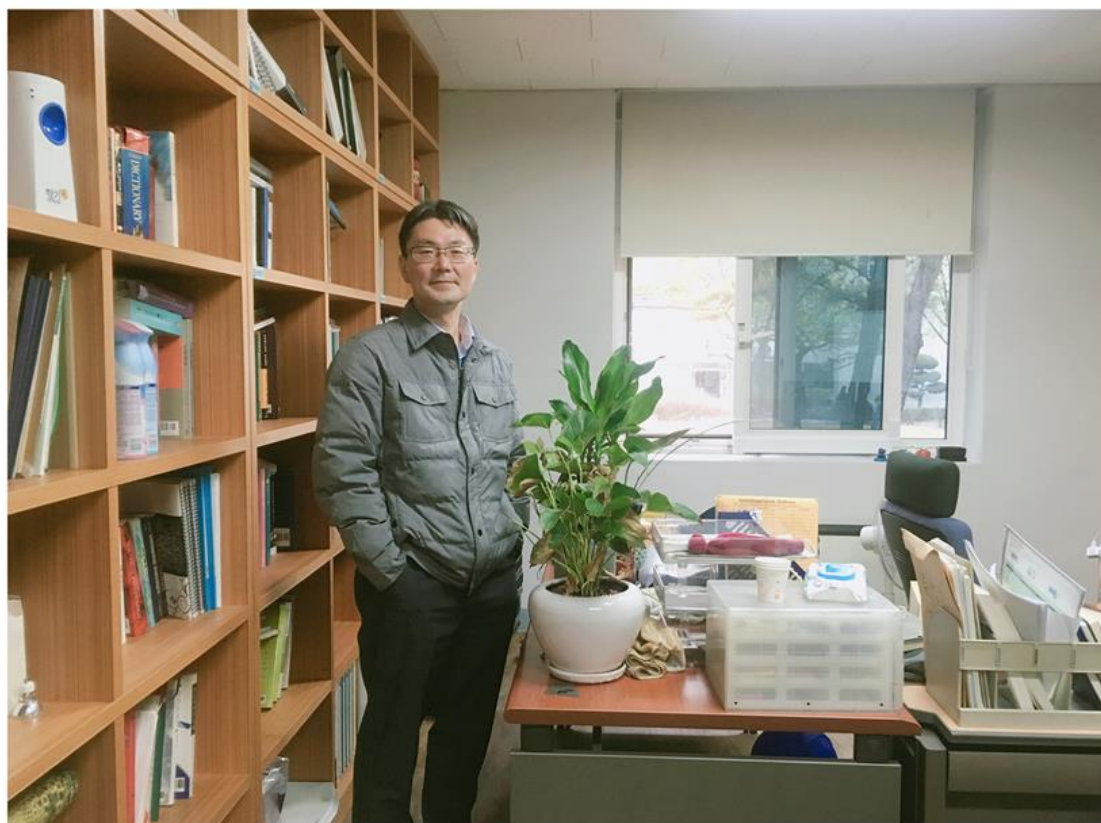


Hosting

돌 아 온

남은

돌아오신 류성진 교수님을 만나다



돌아온 **날** 돌아오신 류성진 교수님을 만나다



교수님께서 2년 만에 학교에 돌아오신 소감/느낌을 말씀해주세요.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왔다는 느낌? 늘 편안하고 안락한 예전 느낌 그대로라고 생각해. 학생들이 예전 학생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무엇이 다를까, 다르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욕구나 원하는 바에 대해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올 한해 학생들이 어떤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처음 2008년에 임용해서 지금까지 늘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해왔던 얘기인데, 동기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 예를 들어 졸업생 같은 경우에 “교수님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남들에게 저는 이런 것을 잘합니다. 라고 보여줄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집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런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학 4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거 같아. 수업시간에 ‘퍼즐 이론’이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어떤

나만의 퍼즐을 모아서 나만의 꿈이라는 그림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야. 일단 꿈이라는 그림 자체가 없으니까 막연하고 불안감이 자꾸 쌓이는 거지. 뭐든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불안감이 쌓여서, 즉흥적으로 주위에서 누가 뭐 하면 그걸 따라서 해버리는? 예를 들어 주변 친구들이 다 토익 공부하니까 나도 해야 할거 같고, 주변에서 공모전 하나까 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도 받고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문제는 그런 세세한 하나하나의 작업물들이 나중에 퍼즐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필요한 퍼즐이 안되거지. A, B, C, D, E 라는 퍼즐을 만들어야 그림이 완성되는데 A 퍼즐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A퍼즐은 너무 많은데 다른 퍼즐이 없으니까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고. 학생들이 학년과 관련 없이 자신만의 꿈의 퍼즐이 없다면 빨리 만드는 게 1차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거야. 2차적으로는 꾸준히 열심히 한 성과들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퍼즐들이 완성되겠지? 그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교수님께서 2년 동안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혹시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음 사는 건 다 비슷하다는 거? (웃음)
 대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2년의 미국 생활에서 나온 얘기라기보단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동물인가. 아니면 충분히 환경을 통제하고 내 의지를 통해 살아나가는 동물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라 새로운 공간 사람이 됐던, 의식주와 관련된 어느 것이든 다양하게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다른 나라가 됐든 지역이 됐든 가보면 그 환경이 주는 색다름이 스스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강화시키거나 바꿔줄 수 있거나 또는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요즘 혹시 빠지신 것이 있다면?

포켓몬고!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더니 고혈압이라고 하더라고.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2개월 동안 매일 1시간 정도 8킬로를 뛰거나 걷거나 했더니만 살이 좀 많이 빠져서 귀국해서 재보니 한 8kg이 빠졌더라. 그 이후에 사회학과에 이승협 교수님이라고 연구년 가계신 교수님이 포켓몬고를 소개해주셨어. 너무 좋다고 하길래 왜 좋냐 했더니 본인도 포켓몬고를 하면서 많이 걸어 다니게 되니까 살이 많이 빠지고 건강해졌다. 마침 그냥 뛰고 걷는 건 심심하잖아. 그럼 게임 하면서 많이 걸으면 좋을 거 같아서 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2kg이 더 빠졌고 지금은 약 10kg

감량을 한 상태야. (웃음) 두 번째로는. 음.. 좀 다른 얘기 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 첫째가 초등학교 이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큰아이하고 같이 이야기하거나 같이 놀 수 있는 관심사가 많이 없으니까. “아빠 뭐 잡았어? 이거 잡았어” 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포켓몬고를 하는 하나의 작은 이유가 될 수 있을 거 같아.

이번 호 주제가 봄과 관련됐는데,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봄’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 특별히 계절에 대한 어떤 선호라든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봄이라고 한다면 음.. 워낙 노래를 좋아하니까. 흥얼거리면서 하는 노래를 좋아해.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다른 교수님처럼 비호 동산 산책하면서 흥얼거렸던 노래가 ‘봄 처녀’ 그런 류의 봄과 관련된 노래 ‘목련화’라든지 옛날 노래 (웃음) 최근 노래 말고 80년대, 90년대 노래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혼자 흥얼흥얼 거리면서 산책을 하지. 워낙 산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산책하면서 꽃을 보다 생각하면 그거에 맞는 노래를 흥얼흥얼 하곤 하는 거 같아.

“아! 아까 미국 갔던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생각났다!” 내가 갔던 도시는 ‘볼링그린’이라고 인구가 얼마 없는 작은 시골이었어.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오히려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사색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나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었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해? ‘그들이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와 같은 이해의 폭도 많이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나 자신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하면서 가급적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꼭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뭐 다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관용이나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게 결국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물론 나이가 내 나이 또래와 당신들처럼 젊은 또래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해도, 내가 필요한 시간과 당신들이 필요한 시간의 양과 질이 조금 달라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을 보면 늘 학교생활에 바쁘고 힘들어하니까.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계획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테마인데, 혹시 교수님께서 이번 봄에 새로 씨를 뿌릴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주 사적인 얘기하나 공적인 얘기 하나를 하자면. 사적인 얘기는 우리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첫 번째로 제일 많고. 두 번째 공적인 얘기로는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실습수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학과에서

신문방송 미디어 언론을 전공하지 않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 또, 김동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우리 학교가 좀 더 융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라는 아이디어를 내셨고 실제로 그걸 계획하고 계신데. 그런 여타의 측면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 학과도 뭔가 다른 학과와 교육과정의 연계나 교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님들과 얘기해 보니 그걸 좀 더 많이 느끼게 됐고. 마침 개인적으로 시각디자인학과에 친분이 있는 교수님이 계셔. 그쪽 교수님이 우리 학과하고 같이 교육적인 일을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니까.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거 같아. 우선 1차적으로 시각디자인학과와 연계를 해서 이론과 실무가 함께 학습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보는. 그게 개인적인 프로젝트 계획 이랄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좋은 말 한번 생각해봐야지 (고민). 뭐가 있을까? 음! 이번 주제와 크게 상관없지만. 학과에 교수님이 총 5명이 계신데 학생들은 거의 200명이 된단 말이지. 교수님들이 아무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알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 고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교수님들이 하는 일이 조금 많은지라 바쁠 수는 있겠지만, 바쁘다고 해서, 당장 상담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학생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줄 수 있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교수님을 능동적으로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

아! 한가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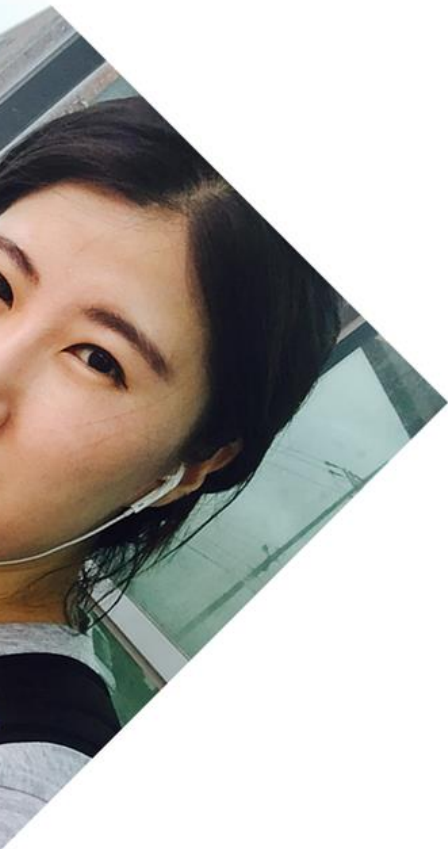
상담하러 올 때 본인이 고민하는 거까진 좋은데, 결론을 내리고 와서 상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미 답을 내려놓고 일방적인 통보 식으로 해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온건 본인이 이미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바꾸려고 잘 하지 않는단 말이지.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정확한 결론이 잘 내려지지 않을 때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해.



사랑사랑 부는 봄바람과 함께 스치듯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어쩌면 멋모르던 신입생 시절, 스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인연을 붙잡아 여태까지도 봄이 오면 연락을 하는 16년도 졸업생 11 서다혜 학우에 대한 얘기다. 왜 하필 봄이냐 묻는다면, 아마 같이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이 봄이라 그럴 것이다. 조건 반사처럼 봄만 되면 생각나는 서다혜 학우의 봄 맞는 법을 들어보자.
Editor_윤유미





봄이면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나 책, 영화 등이 있을까요?

마침 이 질문에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바로 시열사 로년, 도널 글리슨 주연의 <브루클린>이라는 작품이에요. <브루클린>은 낯선 뉴욕에서 만난 진정한 사랑과 또 다른 만남의 설렘을 우아하고 감성적으로 담아낸 드라마예요.

제가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하던 즈음, 회사라는 곳에 적응도 잘 안 되고, 업무를 해나가는 데에 있어 잦은 실수와 느린 적응력 때문에 한동안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모든 순간이 우울하고 힘을 낼 수 없던 시기였죠. 그 날도 영화 한 편으로 나의 하루를 위로하기 위해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극장으로 갔는데, 정말 영화 속 여자 주인공에게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버렸죠. 브루클린이라는 낯선 대도시에서 혼자 방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녀지만 멋진 남자와 사랑에도 빠지고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슬픈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뿜어내며 저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던 영화예요.

원작 도서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땀 흘리며 사버렸죠. 아직도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보곤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봄 하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벚꽃인 것 같아요. 대구에는 벌써 벚꽃이 많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서울에서는 걱정하고 나들이를 가지 않으면 꽃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에는 더더욱 그렇죠. 4, 5월이면 벚꽃이 만개한 사회과학대 뒤편에서 친구들과랑 사진 찍고 산책 다녔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번 봄에도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영화와

벚꽃으로 온기를 가득 채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만의 봄을 맞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계절이 바뀔 때쯤 옷장 정리를 해요. 얼마 전에도 겨울 이불과 두꺼운 옷들을 싹 다 정리했는데 이제야 진짜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고 느끼면서 봄이 왔다는 사실이 실감 났죠. 이불을 바꾸고 옷장 정리를 하면서 바뀐 계절을 맞이하는 게 저만의 방식일 수 있겠네요.

봄이면 곧 씨를 뿌려야 하는데, 지금 뿌리고 있는 씨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여행을 많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아무래도 주말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일주일, 한 달, 일 년이 훌 가버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나름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죠. 대단한 여행이 아니라 소박하게라도 어디든 많이 가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자전거 타고 한강도 가보고 남산타워에서 케이블카가 아닌 걸어서 올라갔다 와 보기도 하고요. 작년 여름휴가 때 제주도를 혼자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에도 제주도를 다시 가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중이에요. 또 얼마 전에는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 숨어있던 여행 욕구가 마구마구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지 벌써부터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휴가는 쓸 수 있겠죠? (웃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언제 한번 잔디밭에서 맥주나 한잔할까요? 따뜻해지는 봄날, 좋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힘들다면 서울에서라도 만날 기회가 닿기를!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 떠나 서울에서 의미 있는(?) 고생 중인 서다혜입니다! 11학년 수석어가 아닌 이제는 진짜 졸업생으로 인사를 해야 해서 한편으론 기분이 묘하면서도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웃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졸업한 뒤 사회에 첫발을 댄 지도 벌써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직도 마음은 대학생인데 지금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명함 내밀고 첫인사를 건네는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칼퇴를 손꼽아 기다리며 '내일이 금요일이기', '주말이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죠. 저는 막대한 환상을 가졌던 영화 마케팅이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배우며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건 변함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시렸던 마음이 봄처럼 녹고 있어요. 당신들 덕이랍니다. 꽃 같은 사람들.”

나는 꼭 내가 문득 연락해도 졸업하고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선배 한 명을 만드는 것이 졸업할 때까지의 목표였다.

내 목표는 이루어졌고, 나의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 '샬러드 사주실 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봄이 되면 가장 생각나는 선배이다. 왜냐고? “여러분 시렸던 마음이 봄처럼 녹고 있어요. 당신들 덕이랍니다. 꽃 같은 사람들.” 라고 써준 문구가 3년이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보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멋진 우아란 졸업생과의 인터뷰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잘 봐두길.

Editor_이승민





봄이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 시고잖은 답변일까요? '꽃' 일테지요. 저는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고 섬세함과는 멀어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있는데요. 20 여년은 그 이미지 그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꽃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오! 예쁘긴 하지만 곧 죽어 버려지는 존재.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꽃이나 식물이 너무 좋아졌어요. 선물 받은 꽃을 건조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잘 마른 꽃 한 송이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일까요? 꽃이나 식물에 푸욱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화려한 꽃들이 더 많이 피어나는 봄이면 역시 '꽃'이 떠올라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견 '마크' 가 꽃이나 식물을 보면 죄다 물어뜯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떤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닌 말을 마치 대사마냥 읊는답니다. "너보다 약한 식물을 사랑해야지 마크야" 라고말이에요.

저에게 봄은 너무도 약한 생명체를 만나고 간직하고 지키는 계절이라 '꽃'이 떠올라요

추천하고 싶은 장소나 책 영화가 있나요?

'플라워즈 (flowers)' 코이즈미 노리히코 감독의 일본 영화예요. 2010년에 개봉했고 저는 2011년에 봤어요. 저는 평소에도 일본 소설이나 영화를 애정하는 편인데 그 색감과 특유의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플라워즈는 그런면에서 그 감성과 색을 잘 담고 있는 영화중 하나예요. 린(아오이유우)의 결혼시점을 시작으로 자식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이 영화는 계절을 너무나 잘 담고 있는 영화예요.

기회가 된다면 마음이 잔잔한 봄날 여러분들이 꼭 보았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또, 최근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기주 작가의 작품 '언어의온도'입니다.

작가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자신의 혹은 타인의 말속에서 온도를 느끼는 작가의 감성이 마음에 포근하게 와닿는 작품이에요. 2017년 완연한 봄날이 오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 마크와 함께 돛자리를 들고 야외음악당에 누워 이 책을 읽는 것이예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떠올리면 보고 싶고 그리운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참 뒷사람들에게 잘 못 하고 아랫사람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대학 4년간 많이 배웠어요. 지금은 비록 심을 반복하는 백수가 되었지만 학과에서 배운 스스로를 위한 고고함과 기품을 잊지 않고자 스스로를 '백조'라 칭하고싶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한 후배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가 선정된 이유가 예전 제 발표에서 꽃 같은 선배들의 앞길을 응원하고자 소개했던 시가 인상 깊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뻐요. 여리고 연약하지만 늘 봄날이오면 태동하는 생명체!

아직 멀어 보이죠? 까마득하고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루에 12번. 아니 24번 이상 생각하곤 하죠?

잘하고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힘들거나 잘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 읊는 말이에요.

"앞길에 거름을 뿌리고 뒤돌아보니 꽃이 피어있었네" 힘든 나날들. 4년 뒤 뒤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앞길에 봄날을 맞이하여 두근두근! 태동하는 꽃들이 화려하게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도 입학하여 2016년 2월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끌어안으며 신문방송학과(지금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한 12학번 우아란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현재 집밥 백선생의 레시피를 들여다보며 김치볶음밥 해 먹고 김치전 해 먹으며 아슬아슬한 백수생활을 이어가고있는 백조녀입니다. 2015년 서울로 무작정 달려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었던 바이럴마케팅 회사에서 1년 3개월 477일 광고와 마케팅을 온몸으로 느끼고! 내 앞길에 필요한 거름이 너무도 많음을 깨닫고 3월 21일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하지만 내 삶의 첫 독립이 시작됐다.

자취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이름

그들의 자취일기 ①

2명이 살기엔 생각보다 넓은 공간. 친구와 함께 보낸 자취의 초반은 펜션에 눌러 온 것만 같았다. 어색하고도 들뜬 마음이 가득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넓은 방에 돌이서 추위에 떨었던 것 같다. 사람이 오래 살지 않아서 그런지 한기가 돌아 몇 날 며칠을 고생한 기억이 난다. 이제 막 한 달 정도가 지난 지금은 웅했던 방안이 어느새 사람 사는 집처럼 나름대로 모습을 갖춘 것 같다. 자취하기 전부터 나는 늘 자취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 먹고, 가끔은 캔맥주에 영화 한 편도 보고,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해놓으며 살아야지.”

개강 후 한 달이 흐른 지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본 것 같다. 다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다. 맛있는 음식은 혼자보다는 친구와 시간이 여유로운 날에 함께 해 먹을 수 있었고, 캔맥주에 영화는 졸린 눈을 떠가며 수업 과제로 보는 것이 다였다. 아침이면 정신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정리정돈은 밤에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비록 나의 로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취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방안 정리하면 되었던 기숙사와는 달리 자취방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므로 게으르던 나를 조금이나마 더 부지런하게 만들어주었고, 밤에 배가 출출할 때 친구와 함께 냄비 라면을 끓여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들어오면 진짜 집과 같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아주 작고도 소박하지만, 이 모든 순간이 나에게겐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작다면 작은 나의 첫 독립이 시작되었다.

자취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이름 부모님께서 자취를 생각보다 흔쾌히 허락해주셨을 때가 생각한다. 큰 내색은 없으셨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서툰 둘째 딸일 텐데 속으로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나는 부모님께 살가운 딸은 아니다. 원래 애교가 잘 없는 편인 데다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 그런 성격이라 표현을 못 한 적이 많다. 이런 무뚝뚝한 내가 자취를 하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지내면 될 거로 생각했는데, 부모님 생각이 들 때가 기숙사에서 지내던

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아무렇지 않게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던 음식들이 어느새 나는 몇 번이나 들었다 놓기를 반복해야 겨우 살 수 있었고, 나도 모르게 비어 있던 쓰레기통을 어느새 나는 버티고 버티다 더 넣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우곤 했다. 수건들이 늘 말끔하게 개어져 있던 것이 어느새 나는 건조대에 걸려있는 수건을 급하게 들고 씻으러 들어가야 했고, 저녁마다 맛있는 냄새가 집안 가득 났던 것이 어느새 일정이 없는 한가로운 날에야 겨우 친구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맛있는 과일을 한 상자 가득 먹을 수 있는 것이 자취생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었음을, 집안 곳곳에 부모님의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었음을 나는 이렇게 또 깨닫게 되었다. 혹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보고도 모른 척 지낸 것은 아닐까 괜스레 코끝이 찡해지며 오늘도 나는 문득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곤 한다.



**방안에 정적이 흐르고 바깥에 고양이 소리가 '야옹'
 두 번 외칠 때 오늘도 다시 꿈이라는 세상으로 다가간다.**

그들의 자취일기 ②

3월 28일 화요일 날씨는 따뜻함

나는 오늘도 냉장고 문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벌컥벌컥'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간다. 상쾌하고 개운하다. 비틀비틀 샤워실로 들어간다. (우리집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있다.) 허물을 하나씩 하나씩 벗고 샤워실로 향한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절로 콧노래가 나온다. 거울안의 내가 보인다. '후..... 이 아저씨는 뭐지?' 부스스한 머리에 수염도 덩수룩하게 자라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느껴지고 조금 우울하기만 하다.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재빨리 면도기를 손에 든다. '속속' 악 "젠장" 베었다. 따갑다. 아직도 면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어렵기만 하다. 투덜투덜하면서 손이 떨기 바디워시로 향한다. '쿵쿵'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다. 거품도 많이 나고 행복하다. 솔직히 샤워하는 이유가 깨끗이 하는 거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샤워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탈탈 머리를 대충 말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휴... 침대가 나에게 손짓하는 것이 보인다. 조금만 더 자라고... 훌릴 뻔했지만 무시하고 이불 정리를 했다. 등을 돌릴 때쯤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지저분하다. 내 마음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잡하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생각이 무더지기 위해 드라이기를 손에 든다. 천천히 머리를 흔들면서 점차 세차게 말린다. 머리를 맑게 하고 컴퓨터를 초기화 하듯이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 옷장을 살며시 연다. 머리를 한번 굴적이고 주섬주섬 옷을 꺼내 입는다. 옷장 섬유 유연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시계에 눈이 빠르게 돌아간다. 벌써 8시 30분이다. 출발할 시간이다. 허둥지둥 신발장으로 향한다. 신발이 보인다. 하얀색 나의 신발이 어느새 까만색으로 바뀌었다. 한 번 세탁해야 하는데 귀찮다. 다음에 해야지 신발 끈이 머리카락처럼 신발장에서 뒹굴고 있다. 빠르게 계단을 힘차게 내디딘다.

시간이 흐른 뒤 달이 환하게 비출 때 나는 집에 도착한다. 문을 살며시 연다. 선글라스를 쓴 것 같다. 내 방이 너무 어두운 것을 느낀다.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는다. '딸깍' 누가 왔다 간 것처럼 지저분하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 군인 정신으로 모든 물건을 정리정돈 했었는데 지금은 도둑이 들어온 마냥 뒤죽박죽이다. 일단은 축 늘어진 어깨를 다시 끼워 맞춘다. 지저분한 책상을 하나씩 새마음으로 깨끗이 정돈한다. 내 마음도 같이 정리된 듯한 느낌을 받아 흐뭇하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손이 간다. 상했는지 모르는 오렌지를 집었다. 한참 오렌지와 눈싸움을 한 뒤 나는 결심을 하고 반으로 잘랐다. '냠냠' 껍질을 쪽쪽 짜 먹고 있다. 아쉬워서 메모장에 오렌지라고 크게 적는다. (나는 장을 보기 전에 메모한다) 샤워실로 가서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와서 멀리 보이는 침대라는 수영장에 다이빙했다. 너무 폭신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침대와 몸이 한 몸이 되고 이불은 내가 좋은지 나를 계속 감싼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천장이 눈에 들어온다. 깜빡깜빡 전기가 나갔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잠이 조금 안 와서 천장에 잠자리를 한 마리 한 마리 그려본다. 1마리 2마리 3마리... 어느 새 중얼거리던 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방안에 정적이 흐르고 바깥에 고양이 소리가 '야옹' 두 번 외칠 때 오늘도 다시 꿈이라는 세상으로 다가간다.



성숙해진 나, 더 성숙해질 나

그들의 자취일기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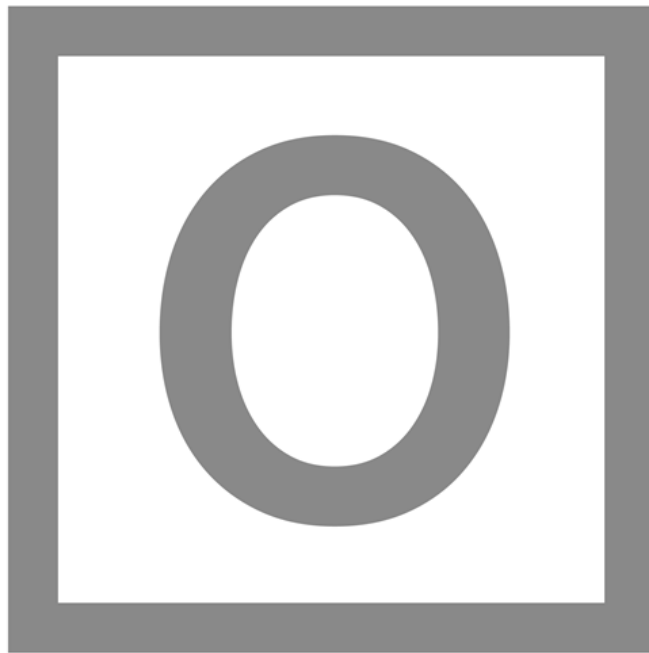
오늘도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왔다. 올해 나는 학생회 임원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지금 딱 내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다 해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기 때문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 서툴렀던 작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지금의 난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한다. 집이 그리워 매일매일을 주말만 기다리며 힘들게 보냈던 작년과는 달리 지금은 여러 가지 내가 맡은 일들을 하면서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적 여유도 만들며 잘 지내고 있다. 나는 2017년 새해 다짐으로 짧게라도 오늘 한 것들에 관해 쓰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보자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쓸 때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항상 다음 요일 칸까지 밀려서 쓰곤 했다. 그래서 지금은 조그마한 요일별 달력 대신 널찍한 일기장으로 바꾸었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나 슬프고 속상한 날에는 무작정 펜을 잡고 종이에 내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게 지금은 습관이 되어 내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메모해 두었다가 쓰기도 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장시간 동안 집 생각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했던 것도 있지만 내 일과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일기장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기장은 내가 기분이 어떻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좋은 친구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감정 표현을 잘하지만, 나 스스로에게는 모든 감정에 대한 표현 방법이 서툰 편이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잘했어 수고했어.’ 라는 쉬워 보이는 말도 스스로 그 말들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일기를 쓰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위로해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나는 강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면에서 어리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은 아주 서툴지만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스물두 살이 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기를 쓰면 하루하루가 기억에 남는 일들로만 가득한데 작년을 통으로 날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오늘부터 짧게라도 일기 쓰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분명 자신이 한층 더 성장했다고 느끼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한테 가장 고마운 건, 꾸준히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나에 대해 더 잘 알아가고 있고, 그 덕분에 내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했고 잘해왔고 잘할 거야. 고마워 소윤아.



Outreaching

청춘, 봄을 말하다

따뜻해진 기온과 함께 찾아온 봄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계절의 첫 시작이 봄이듯이 봄은 늘 새롭고 싱그럽고 따뜻하다.
그만큼 봄은 많은 이들의 추억을 간직한 계절이다.

청춘, 말 그대로 푸른 봄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여기 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감독: 구파도/ 출연: 가진동, 진연희/ 대만, 2011)

첫사랑, 어쩌면 봄과도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중 하나다.
오직 그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는 그 벅찬 설렘,
처음이기엔 서툰 수밖에 없는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아련함은
봄과 가장 닮았다. 때로는 짓궂은 장난으로,
때로는 무모한 감정으로 모습을 바꾸는 첫사랑.
그 찬란한 감성을 잘 담아낸 영화는 바로 이 영화가 아닐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제아 커징팅과 친구들은 같은 반 전교 1등 선자이를 좋아한다. 그들이 선자이의 관심을 받기 위해 각자의 방법대로 관심을 표하던 어느 날, 교과서를 두고 온 선자이를 대신해 커징팅은 자신의 교과서를 건네주고 대신 벌을 받는다.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선자이는 커징팅에게 자신이 제일 잘하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무모한 성격 그대로 선자이와 공부 내기를 하는 커징팅은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 난생처음 열심히 공부한다. 열일곱의 남학생이 그러하듯 늘 유치한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커징팅의 모습은 선자이에게도 전달되고, 그 둘은 풋풋한 감정을 간직한 채 졸업을 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그들이지만, 고등학생 때의 철없는 모습을 버리지 못한 커징팅의 행동은 오해만 일으키며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해는 계속해서 바뀌고, 몇 년이 지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선자이에게 커징팅은 묻는다. 그때 자신이 고백했을 때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정말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서는,
 진짜 둘이 하나가 되면 많은 느낌이 사라지고 없대.
 그래서 난 네가 오래도록 날 좋아하게 두고 싶었어.”
 “날 좋아해 줘서 고마워.”
 그리고 커징팅은 답했다. “나도 널 좋아했던 그때의 내가 좋아.”



선자이가 자신의 진심이기에, 자신의 청춘이기에, 그녀의 결혼식에서 커징팅은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아니, 자신의 청춘이 행복하기를 빌었다. 그렇게 첫사랑은 청춘이 된다. 가장 현실적인 첫사랑의 결말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뤄질 수도 있었을 사랑이 나의 서툰 행동 때문에 못 이루어진 건 아닐까 하는 자책, 그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감정이 얼버무려져 멍멍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는, 순수하고 찬란한 그 기억은 결국 내 청춘의 전부. 영화의 끝에서 32세의 커징팅은 17세의 커징팅에게 말한다.

“17세 커징팅에게.
 고마워! 한 소녀를 사랑하던 널 영원히 잊지 않을게.
 그 시절의 너 반짝반짝 빛이 났다!
 -32세 커징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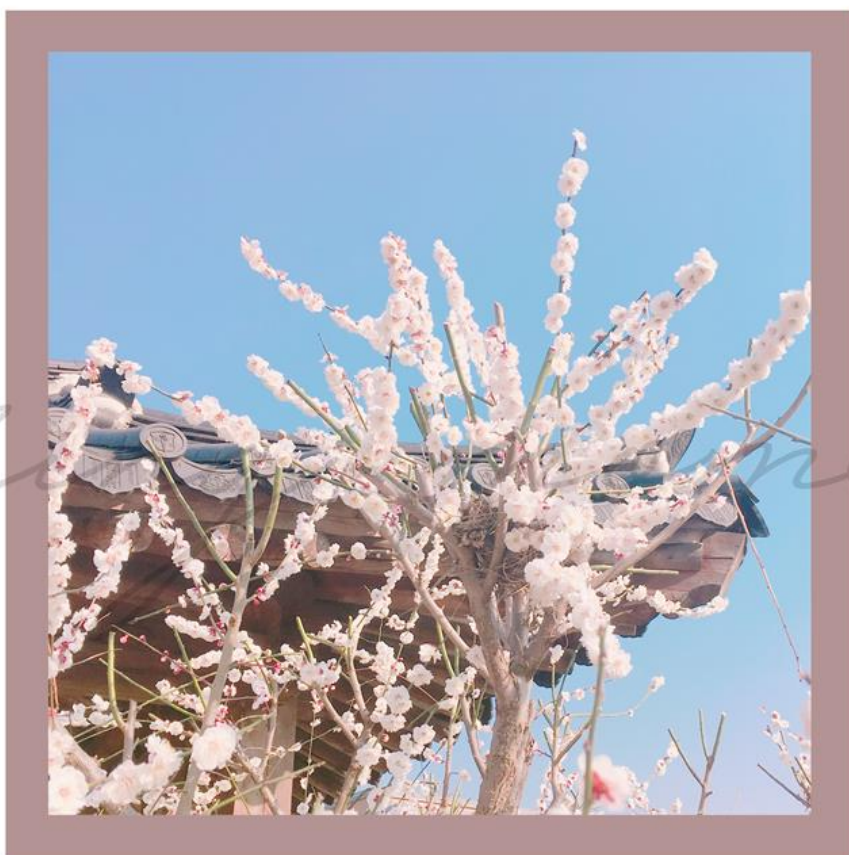
만약, 당신에게도 자신의 청춘이었던 첫사랑이 존재한다면, 이 영화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다.

1시간 47분여의 시간 동안 당신의 청춘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당신은 커징팅이 되어,
 혹은 선자이가 되어 기억 속의 첫사랑과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의 봄에 아련함이 더해진다.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3월에는 오려나, 했더니 한 달 내내 꽃샘추위에 밀리고,
다른 날들에 치여 짧게 지나는 두 달 남짓의 불쌍한 계절.
그래서 더 소중한 날들의 잊을 수도, 잊고 싶지도 않은 순간의 기록들.



봄의 순간

Spelling moment

01

추억에 빠지면 뭐든 아름다워 보인다 했던가.
 강제로 책상 앞에 종일 앉아 발 묶여 있어야만 한다는 게 그때는 그렇게도 싫었는데, 지금은 눈을 감았다가 뜨면 되돌아가 있었으면 하는 순간이 되어 버렸다. 공부는 싫어했지만 다 같이 앉아 선생님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들었던 수업시간이 기다려지던 때가 있었고, 주말까지 학교에 오는 것을 늘 불만으로 여기면서도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시켜 먹던 점심은 하나의 낙이 되었다. 특히 1,000원도 하지 않은 돈으로 그렇게 즐거웠던 때가 있었을까. 지금이야 4-5천 원 하는 카페인으로 하루를 버티지만, 열여덟의 나는 매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물고 얘기하면서 운동장을 도는 것이 곧 행복이었다. 어스름한 하늘, 크게 울리던 자율학습 종소리, 그리고 풋살장에서 들려오던 남자애들의 목소리까지.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가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시간을 두고두고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때가 있다. 그래서였는지 나는 교실 불빛들이 환하게 켜져 있는 어두운 학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었는데, 아직도 그 사진을 보면 그 날의 선선했던 봄의 공기와 온도가 살에 닿아있는 것 같다.

02

취향은 음악을 선곡하는 자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노래를 '어떻게 듣느냐'의 방법에 있어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하나의 곡에 꽂히면 한 곡 재생으로 무한 반복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아껴뒀다가 랜덤 재생을 했을 때 나오면 왠지 모를 기쁜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는 '좋다' 싶으면 듣지 않을 때도 온종일 틀어놓는 확실한 전자였다. 많으면 달마다 하나씩 그런 노래를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커 버스커 1집 <버스커 버스커>는 내게 있어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같은 앨범이다. 물론 내가 열여덟에 처음 들었던 '벚꽃엔딩'은 당시에도 돌풍을 일으켰을 만큼 센세이셔널했지만, 밴드 음악을 좋아하던 나에게는 더욱 유난을 떨게 만들었던 가수였다.



그댈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멀어 지나오 왜
 내 마음을 몰라요 날 사로잡는 그대여
 기다리고 있으면 점점 멀어 지나오 왜
 내 마음을 몰라요 왜
 버스커 버스커, 이상형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던 만큼 MP3에 전곡을 넣어서 자주 들었는데, 낡은 기기는 재생 목록을 설정해두고 몇 번 전원을 껐다 켜면 자꾸 리셋 되어 버리곤 했었다. 그 바람에 버스커버스커의 곡을 제외한 재생의 '방해물'로 여겨졌던 200여 개의 곡들을 전부 삭제했던 적이 있었고, 수험시간에는 애초에 수포자라며 선생님의 눈을 피해 체육복 안에 이어폰을 넣고 한 시간 내내 벚꽃엔딩을 들었더랬다. 특히 집에 가는 길에는 잠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크게 키워서 매일 여수 밤바다를 들었었는데, 열여덟의 봄부터 수능 한 달 전까지 그러기를 매일같이 반복했다. 그리고 버스커버스커가 사실상 해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나는 정말로 사실 눈물이 살짝 났었다. 그들은 내게 있어 하나의 매개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던 가수가 향수 자체가 되어버린 지금, 앞으로 다시 그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무얼 하던 추억이 되어준 그들을 앞으로도 지지하게 될 것 같다.

03

지금이야 수업을 마치고 기다렸다가 다섯 시 반 버스를 타고 집에 가기에 급급한 통학생이지만,

한때는 1교시 수업을 5분 전에 출발해서 간신히 지각을 면하던 기숙사생일 때가 있었다.

물론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화석’이라고 말하는 4학년이 된 지금 1학년을 돌이켜보면 아련하고 막연한 기억이긴 하지만.

여하튼 모든 것이 새로웠던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들이 하나의 재미가 되었다. 룸메이트 친구들과 밤마다 야식 시켜먹고 같이 놀러 갔던 것, 주말에 집에 갈 때의 반가움, 동기들과 몰려다니면서 보냈던 공강 시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로써는 할 수밖에 없었던 대리 출석, 뭐 그런 것까지도.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에 적응하기에 바빴던 시기였지만 돌이켜보면 지금이 아니면 느껴보지 못할 기분이라는 생각에 설레했던 것 같다. 술을 자주 먹어도,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스무 살의 봄 아닐까. 갓 성인이 된 티를 내면서 ‘자유’라며 신이 났던 그때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그때의 에너지가 가끔은 그림다.

04

매년 오는 것이 봄이고, 그런 봄마다 피는 게 꽃이라지만 그래도 유난히 작년의 봄은 더 따뜻하고 예쁠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가까이 있지 못하더라도 매 순간 함께 했었고, 자주 보진 못해도 늘 옆에 있는 것처럼 선연했다. 일방적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닿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구차했지만 그렇게라도 하고 싶던 게 마음이었다.

예전에 같이 벚꽃을 보러 가자고 약속했던 적이 있었다.

4월에 서울에 놀러 오면 학교도 구경하고, 그러면 같이 벚꽃도 구경하자며. 그때의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고, 그 날만 상상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벅차올랐다. 하지만 희망에 가까웠던 약속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특별하길 바랐던 우리가 단지 보통의 관계였다는 것이 느껴질수록 조금 마음이 아팠다.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그맘때쯤이면 예쁘고 따뜻한 것들만 생각하려는 편이었는데, 작년은 벚꽃엔딩보다 ‘봄이 좋냐?’나 ‘봄을 노래하다’, ‘봄을 그리다’, 뭐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들었던 유일한 시기였던 것 같다.

그렇게 다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는 얼마 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만나 생각보다 태연하게 웃고, 장난치고, 이야기했다. 사실 집에 가는 길에는 내가 입고 갔던 옷, 했던 말, 지었던 표정, 했던 실수 등 의미 없는 행동에 무수한 의미를 붙이고 후회도 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나만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은 한결 편했더랬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고마웠어, 조심히 들어가. 그래 너도.

물론 그 날 새벽 공기는 유독 차가웠고, 고요했다.

하지만 너를 만남에 있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후회가 덜 남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던가.

작년에는 내가 너에 훨씬 못 미쳐서 그렇다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자책에 시달려야만 했었다면, 올해 각자의 봄은 누구보다도 좋은 생각들로만 채울 수 있기를.

나는 나에게, 너에게 바란다.